metro®

"남대문시장에는 왜 면세점 못주나" 면세점이 재벌기업들 배만 불리고 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국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실종됐다. 재벌 면세점들이 루이비통, 샤넬 등 외국 명품으로 매상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국산품 생산업자와 중소 유통업체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입고 있다. 차라리 남대문상인회같은 곳에 면세점 권한을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은 남대문시장 골목에 현수막을 합성한 모습이다.

시내 면세점 相生이 최우선이다

"국민 혈세로 재벌 배 불리기 그만"

오는 6~7월 예정된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선정을 앞두고 유통 재벌기업들의 면세점 쟁탈전이 한창입니다.

면세점 공룡 롯데와 호텔신라는 물론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 사업을 하지 않았던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까지 뛰어들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백화점·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이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면세점은 새로운 '돈맥'으로 절실한 사업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해마다 20%가 넘는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8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한 해 6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 특수(特需)에 힘입어 2010년 이후 4년만에 2배나 성장했습니다.

국가가 조세 징수권을 포기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2000년 이후 처음 선정되는 서울시내 면세점의 과실(果實)은 국민 몫이 될 수 있을까요?

화가 나게도 현재 국내 면세점의 수익금은 대부분 재벌들의 몫입니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은 1979년, 호텔신라 면세점은 1986년 처음으로 특허를 받은 이후 30년 넘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며 정부가 내준 면허권 안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관세 등 조세 수입을 포기해야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공익 목적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2개 면세점으로부터 조세 대신 벌충한 특허수수료(이하 특허료)는 2012년 한 해 1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의 특혜를 받고도 이들 면세점은 경쟁력이 약한 국산품의 판매 촉진에는 관심없이 외국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3년 발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 총 특허 수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주고,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에 총 특허 수의 60% 이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 면적을 규제하지 않아 재벌 유통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비중은 여전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면세점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정부 시행령에 있는 전체 면세점 특허 수의 60% 제한을 충족하면서 제재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6% 수준, 중소기업은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공고안에 적힌 심의 기준에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생'을 위해 재벌 유통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남대문시장 같은 곳에 면세점 한쪽 자리를 내줄 수는 없을까요? 중소기업이 없는 재벌 면세점. 계속 커지는 면세 시장의 겉은 화려해보이지만 속은 독점과 특혜만 더욱 굳어지며 재벌 지배가 반영구화되고 있습니다.

/염지은 생활유통부장

▶ 관련기사 p/12

BE WITH Nepal(네팔을 응원합니다) 지난 26일 중국 후난성 헝양의 난화대학 학생들이 촛불로 'BE WITH Nepal(네팔을 응원합니다)' 문구를 만들어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연합뉴스

지구촌 지진 공포

네팔 강진 참사로 지구촌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네팔 강진이 대지진의 전조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섣불리 단정하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지진이 빈번했던 지진 위험지역 국가들에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의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의 몇몇 국가들은 네팔 강진 직전 한 차례 재난을 경험했다.

칠레 푸에르토바라스에서 남쪽으로 1000㎞ 떨어진 지역에 있는 칼부코 화산은 지난 주 두 차례 화산재를 분출했다. 1972년 이후 42년만이다. 칠레에는 90개의 활화산이 있다. 칠레 당국은 "추가 지진활동이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 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샌안드레아스 지진대에서 연쇄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다. 샌안드레아스 지진대는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주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규모 6.8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주 "관동 지역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단층이 24개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2011년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었다.

또한 쓰촨성, 운남성 대지진을 경험한 중국과 이스탄불 대지진을 경험한 터키도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집밖으로, 집밖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네팔에서 26일(현지시간) 수십차례의 여진이 이어지자 공포를 느낀 카트만두의 주민들이 집을 빠져나와 바산타푸르 두르바르 광장에서 노천 생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팔 지진' 사망자 1만명 넘을수도

외국인 여행자 30만 추정… 각국 긴급구호·자국민 소재 파악 분주

네팔 대지진의 사망자가 1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각국 정부는 네팔에 구호의 손길을 보내면서 자국민 생사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의 네팔 현지보도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대지진 사망자가 3218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6538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사망자는 사태 초반 1800명선에서 지난 26일 2500명가량으로 늘었다.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네팔은 1934년 대지진으로 1만700명이 희생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이날 네팔 당국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최대 1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구호에 나선 국제기구에서는 산사태에 마을 전체가 매몰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지진이 1934년 대지진에 버금가는 최악의 참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진원지인 고르카 지역은 산사태로 구조팀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원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될 경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네팔 당국은 현장에서 생사를 건 구조와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외국 정부도 남의 일이 아니다. 각국은 자국민 생사 확인에 힘쓰고 있다. 네팔에는 현재 약 30만명의 외국인 여행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팔의 주요 산업이 관광업인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여행자 683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환용 전세기를 급파했다. 중국인의 피해는 사망자 4명에 중상자 10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는 자국민 800명을 대피시켰다. 호주는 자국민 여행자 549명 중 200여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뉴질랜드는 100여명과 연락이 닿았다. 일본은 자국민 여행자 1100명의 소재 파악에 열심이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피해 상황을 계속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3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

차마 놓지 못하는 손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서 26일(현지시간) 네팔 여성이 지진으로 희생된 가족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각국은 네팔 긴급구호에도 적극 나섰다. 영국은 500만 파운드(우리돈 81억원), 호주는 500만 호주달러(42억원)를 지원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은 구조대를 급파했다. 우리 정부도 100만 달러를 긴급지원하고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김연아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네팔 어린이들을 돕자는 호소문을 올렸다. 김연아의 호소문에는 유니세프의 네팔 강진 긴급구호 홈페이지가 링크돼 있다. 유니세프는 이날 최소 94만명의 네팔 아동이 긴급한 구호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현수막 선전… 선관위 "재발 방지 방도 없다"

4·29재보궐선거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지역이 선거를 이틀 앞둔 27일 여론조작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을 1위로 발표한 리서치뷰의 서울 관악을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24~25일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 바로 전까지 현수막에 기재했다. 이 지역 출마로 선거판을 뒤흔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지난 22일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정 후보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리서치뷰 여론조사의)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행정자치부 2015년 3월말 인구통계 기준) 후 제18대 대선 득표율·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태호 후보 측에 다음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정태호 후보 측은 25일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선관위의 명령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론 조사가 기재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책 공약을 명시한 현수막을 바꿔 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방식은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라고 했다.

정동영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동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 관악을 사전투표율 7.39%에 리서치뷰의 잘못된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의 유권자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선관위가 여론조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기준을 명시하는 등 법적·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등록된 여론조사를 게재했다는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이) 토요일임에도 심의위원을 모집해 최대한 빨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생겨도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지난 2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리서치뷰 여론조사 심의 결정 이후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위).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국민모임 정동영, 새누리당 오신환,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왼쪽부터)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아래). /정동영 캠프·연합뉴스

강행군에 병을 얻은 박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린 뒤 조윤선 정무수석 등 환영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편도선이 붓고 고열과 복통 증세로 거의 매일 주사와 링거를 맞으며 강행군을 했다. 현재 위경련과 복통 증상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완구, 70일만에 총리직 물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사의를 수용하고 사표수리를 재가했다. '성완종 파문'에 휩싸인 이 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 총리는 취임한 지 70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총리 사표를 재가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 총리 사표에 재가 사인을 하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 총리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부는 당분간 총리 부재 상태에 따라 새 총리 취임 때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가동된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공관으로 들어가 칩거해 왔다. 이후 일주일 간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퇴임을 앞두고 정신적인 피로 누적으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이기자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이 계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의 횡행도 이유다.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 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되던 안이다.

원 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문재인, "불법정치자금 물타기 규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불법정치자금과 불법대선자금은 자신들이 받았는데 자꾸 야당탓만 하고 있다"며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다. 국민 분노의 불길만 더 키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nsecutive Strong Aftershocks in Nepal.

Strong earthquake struck Kathmandu and killed more than two thousand people. This is the most tragic disaster of all times. One of the police officers of Nepal stated that the confirmed casualty numbers are 1953 and 4689 injured. After the 7.8 magnitude earthquake on the 25th, another 6.7 magnitude occurred in the north eastern part of Kathmandu. Nepal authorities said that it is their second day of the rescue attempt but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due to the breakdown of buildings and the people are trapped inside the wreckage. Minister of information stated that there may be up to 4500 casualties. This earthquake triggered a massive avalanche and swept through the highest point in the world, Himalayas. It is reported that there are seventeen casualties and sixty one injured up to this point. There are three injured Koreans reported on the 26th afternoon. There are 650 Koreans living in Nepal but because of numerous tourists, the injured numbers may increase. One serious injured and two injured are tourists. The Korean embassy of Nepal is seeking for further victim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네팔, 이틀째 강력 여진

네팔의 대지진이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했다.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참사다.

네팔 경찰의 카말 싱 반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1953명, 부상자 수가 46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이날 규모 6.7의 여진이 카트만두 동북쪽에서 발생했다. 네팔 당국은 이틀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물 잔해 속에 사상자가 다수 갇혀있기 때문이다. 네팔 정보장관은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45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도 지진의 여파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17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부상자는 26일 오후까지 3명이 확인됐다. 네팔 체류자는 650명가량이지만 네팔 여행자가 많아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상자 1명을 포함해 부상자 2명이 여행자다.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방미 나선 아베 일본 총리, 보스턴 도착 미국 방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26일(현지시간) 보스턴에 도착,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FT "美, 무조건 日 지지 안 된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앞서 미국을 향해 "무조건 일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설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1주일간 미국 방문에 들어갔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베 총리의 미국 순방 중 행보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지와 관련해 역사, 군사, 통상 등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FT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정상국가 일본에 대한 믿음을 외부세계에 주려면 입술을 깨물고 예전처럼 사과를 또 한 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일은 이번 주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반중국협약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나쁠 건 없다"고 했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통상협정이지 변형된 지정학적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5번째 집권' 카자흐 현 대통령 '압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현 대통령이 2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89년 공산당 서기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카자흐를 이끌어 왔다.

27일 카자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97.7%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선 2011년 대선에서도 그는 95.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7년 헌법 개정으로 카자흐는 종신 대통령이 가능하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안정된 삶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옛소련 독립국가연합(CIS) 등에서 파견된 약 1000명의 감시단이 투표·개표과정을 지켜봤다. 국제감시단은 투표·개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소비자원 무시한 이마트

기자 수첩

김 보 라 <생활유통부 기자>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이 거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2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백수오의 대부분이 식용으로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이 비슷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금지된 식물이다. 간독성, 신경쇠약 등 부작용을 유발해 국내에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백수오 가짜 논란 속에 유통업계는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관련 제품 매출액이 크진 않아도 이번 사건으로 자칫 회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헬스원·종근당건강·천호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입점한 80여 개 매장에서 백수오 관련 4개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도 매장에 있던 백수오 관련 3개 품목을 모두 판매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마트는 백수오를 함유한 음료·차 등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27일 이마트 인터넷 쇼핑몰 검색창에서 '백수오'를 검색한 결과 39개의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경쟁업체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마트 측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문제가 있다고 밝힌 업체의 상품이 아니어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품의 판매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비록 일부겠지만 '가짜 백수오'를 모르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마트의 백수오 제품 판매는 국가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비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사례로 보여진다.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유통 기업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국내銀, 중남미 진출 발판 멕시코 잡아라

규제완화·시장개방 확대로 교역 지속 성장
신한·외환·우리, 사무소 설립 등 발길 잇따라

국내은행이 풍부한 자원과 국내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남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액이 가장 많은 멕시코를 교두보로 삼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 멕시코 금융위에 설립인가 승인을 받고 지난 2월 멕시코시티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외환은행의 현지 진출은 지난 1990년 사무소 폐쇄 이후 두 번째다.

외환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브라질법인과 파나마지점, 칠레 산티아고사무소 등과 더불어 멕시코사무소를 중남미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내에 멕시코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 멕시코시티 사무소를 개소하고 지난해 멕시코 금융위에 현지법인 인가 신청을 마쳤다.

우리은행도 지난 2009년 브라질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멕시코 진출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국내은행이 최근 앞다퉈 멕시코에 진출하는 이유는 현지당국의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말 당선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최근 70년간 에너지산업을 독점해 온 국영기업 페멕스의 민영화하는 등 시장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멕시코는 2018년까지 대형 국제공항 건설 등 5900 억달러 규모의 국가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기아자동차가 연간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국내기업도 진출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오는 7월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딜러 모집·정비센터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지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현지 생산 공장도 위치하고 있다.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도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크다. 지난해 대멕시코 교역규모는141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브라질(138억 달러)보다도 큰 규모다.

국내은행 한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최근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감소의 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중 멕시코는 최근 몇년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많아 중남미시장의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사무소로 운영하다보니 적극적인 영업보다는 시장조사와 연락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매 사업 등 현지 고객을 위한 영업이 본격화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후원금 전달 권선주(오른쪽) 기업은행장과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좋은 엄마아빠'께 금융혜택을"

우리은행 가정의달 캠페인

우리은행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좋은 엄마아빠 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금융혜택을 주는 '좋은 엄마아빠 패키지' 상품도 출시한다.

적금과 카드로 구성된 이 패키지는 좋은 엄마 아빠에게 다양한 금융혜택과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좋은 엄마아빠 카드'는 자녀와 함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키즈파크에서 결제하거나 도서구입, 공연관람,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식사 등 가족친화 활동을 위해 결제하면 2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또 사용금액의 0.5%가 포인트로 자동 적립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적금으로 캐시백된다.

'좋은 엄마아빠 적금'과 '어린이 적금'도 있다.

이는 자녀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적금으로, 가족친화 활동을 통해 적립한 '좋은 엄마아빠 카드' 포인트가 캐시백 입금된 금액에 대해 연 10%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일반 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2%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모적금 금리는 0.5%p 우대된 연 2.5%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녀적금에는 가정의 달인 5월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연 5.5%의 특별금리가 적용된다. /백아란기자

檢 '불법 채권파킹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검찰이 자산운용사와 불법 채권파킹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7개 증권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채권 파킹거래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로 알고 있다"며 "이미 지난 1월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전 채권운용본부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바로 올리지 않고 중개인인 증권사에 잠시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최대 4600억원 규모의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투자일임자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파킹 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맥쿼리자산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및 1억원 과태료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맥쿼리자산운용의 채권 파킹거래에 적극 가담해 거래기록을 감추기 위해 타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하거나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한 7개 증권사도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 등 2개 증권사에는 기관주의·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부과했다.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2개 증권회사에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을 내렸다.

/김보배기자 bobae@

진웅섭 금감원장 "소비자 피해 유발 일벌백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방안'의 핵심은 검사 방향의 전환이지, 검사 강도의 약화는 아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특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 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이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검사 사례여서 자기 시정 노력을 기대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사한 위반사례를 적발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자본확충 서두르자”…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러시’

내년 바젤Ⅲ 도입 대비 신한·농협·하나·기업 등 올들어 1조3800억 발행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조건부 자본증권)’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내년 바젤Ⅲ 규제 시행에 대응해 코코본드를 잇달아 발행하는 등 자본건전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지주는 3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코코본드’란 특정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회사채로 우량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면서도 기존의 다른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또 바젤Ⅲ 기준에서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Ⅲ 체제에서는 기존 후순위채권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발행사가 금융산업분리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후순위채보다 커 증권 보유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BIS자기자본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본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에서는 낮은 발행금리를 활용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올해 들어 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 등에서는 모두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지난 16일 신한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이는 10년만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으로 신한은행의 첫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기금,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3000억 발행 모집에 초과 투자 참여해 발행금리는 2.72%로 바젤III 시행 이후 국내에서 발행한 코코본드 중 최저 금리”라며 “상각조건이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발행하게 된 것은 신한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 안정적 리딩뱅크로서의 위상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NH농협은행도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 조건부 자본증권(이하 상각형 코코본드)’을 내놨다. 발행금리는 2.77%, 만기는 10년이다. 국내에서 10년 만기 후순위 조건부 자본증권이 3% 이하로 발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특수은행이라는 안정성에 대한 홍보와 전략적 마케팅 실시에 따른 것이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윤동기 농협은행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은 “이번 ‘후순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했으며 IBK기업은행도 지난 3월 400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해 나흘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한편 BIS비율과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은행권의 코코본드 발행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코본드 발행은 상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라며 “위험계수 변경으로 보험사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타 기관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수은행과 시중은행에 대한 발행금리 프리미엄 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코코본드의 상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정부지원 조항을 포함한 특수은행들에 대한 기관들의 투자 스탠스는 완화되면서 투자가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특수은행의 코코본드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전망”이라고 꼽았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심화로 갈수록 투자대상 발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코코본드가 투자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라며 “상각·이자지급제한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 낮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정상적인 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은행이라면, 콜옵션 행사시점에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수준 높고 콜옵션 행사될 가능성 높아 투자매력 있다”고 부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전면철거 대신 개별개량으로”

서울시, 지역 맞춤형 주거재생 방안 발표

서울시 주거재생 정책이 낡은 주택들을 전면 철거한 뒤 아파트를 짓던 방식에서 개별 주택을 고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의 재생사업은 주로 낡은 주택들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외 주거지는 관리체계가 미흡해 노후화될 뿐 아니라,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의 양대 축은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으로 나뉜다.

우선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 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을 골격으로 하는 지원방안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의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나눠 생활권별로 주거재생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3~5개의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별 주택 개량만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곳은 전면철거 후 재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정비지수제’를 이용해 신중하게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2012년 2월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고 SH공사가 사업 추진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이 개별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

봄나들이 단체사진 계명원에서 IBK연금보험 임직원과 어린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IBK연금보험 제공

‘소송 남발’ 보험사에 과태료 물린다

금감원,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보험사가 앞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송을 남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사가 서민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등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해선 테마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이 포함된 ‘금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등 금융사의 분쟁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보험금 지급지연 또는 거절을 위한 소송제기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 대책으로는 금융사에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회사내 전결권 상향과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소송제기 현황 공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소송이 과다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꺾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한·KB금융지주 등 4대 지주사와 계열사를 상대로 올 상반기 테마검사를 한다.

테마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검사를 하고 해당 기관과 임직원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남은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은행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신속히 고객 통지 후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전면 점검도 추진된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안도미키 | 엘레나 라디오노바 | 가와구치유코&알렉산더 스미르노브 | 드미트리 드미트렌코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 ISU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1위

세계 최정상 피겨스타들의 환상의 무대!

볼쇼이 온 아이스

가정의 달 맞이 특별할인

VIP석 ~~110,000원~~ ▶ 55,000원

R석 ~~88,000원~~ ▶ 35,200원

S석 ~~66,000원~~ ▶ 19,800원

예약문의 | ㈜공연타임스 1588-0786

the freeze

2015.4.28~5.24 목동아이스링크

주최/제작 | (주)공연타임스 후원 | THE MVL HOTEL 협찬 | 마리장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예스24 1544-6399 (주)랑 1666-8662 단체문의 | 1588-0786

'가짜 백수오' 후폭풍… 코스닥, 옥석 가린다

대외 여건·실적시즌 앞두고 변동성 여전
기대감에 상승폭 컸던 종목 경계심리 강화

코스닥이 '가짜 백수오' 여파에서 벗어나 700선 탈환을 시도 중인 가운데 변동성 확대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코스피 기업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다 실적 개선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27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회사 1035개(스팩 등 특수목적회사 제외) 중 증권사들이 올해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275개사(26.6%)다. 이 중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전망치를 발표해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곳은 94개사(9.1%)다.

코스피 상장회사 729개(특수목적회사 제외) 중 1곳 이상 증권사가 분석하는 기업이 234개사(32.1%), 3곳 이상이 커버하는 기업은 126개사(17.3%)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실적예측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총액 91조3231억원 중 증권사 분석 대상 기업의 순이익은 81조3538억원이다. 반면 코스닥 기업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총액 6조9125억원 가운데 증권사 분석 대상 기업 순이익은 2조1486억원에 불과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코스피가 1.4%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4%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 이유는 외국인의 엇갈린 매매로 대규모 차익실현, 하락 유도 후 비중 확대, 시장 손바뀜 등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1분기 실적시즌 진입에 따른 코스피와 코스닥의 예상 실적 접근성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코스피의 경우 증권사의 분석 대상 기업이 많아 증권업계 전망치가 전체 순이익의 90%를 반영하는 반면 코스닥은 전체 순이익의 31% 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입장에서도 코스피는 실적시즌 진입에 따른 대응이 쉽고 추정치도 양호해 순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코스닥은 실적발표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7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이어가던 코스닥 지수는 지난 22일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의혹 여파로 703.34포인트까지 급락했다. 이에 실적시즌을 앞두고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앞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논란에서부터 야기됐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 원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난 22일부터 4일 연속 하락해 반 토막 났다. 이 기간 내츄럴엔도텍의 시가총액도 1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내츄럴엔도텍과 함께 코스닥 상승을 이끌던 제약·바이오·화장품주들도 줄줄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이 그동안의 과열 양상을 벗고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 평가가치 부담이 큰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불안 심리, 차익 실현 심리가 커졌다"며 "중소형주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보다 기대감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에 대한 경계 심리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대심리가 아닌 실적·펀더멘털(기초여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적 가시성이 높고 이슈나 테마가 있더라도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환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특정 종목(내츄럴엔도텍)이 야기한 코스닥 시장 조정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KDB대우證, 대학생 금융캠프 기회 제공

KDB대우증권(사장 홍성국)은 27일 '개인연금 성년의 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을 맞아 타사로부터 개인연금을 이전하는 고객의 대학생(손)자녀와 자녀명의 개인연금을 적립식으로 10만원 이상 가입하는 신규고객의 대학생 (손)자녀에게 'KDB대우증권 대학생금융캠프' 참가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KDB대우증권 대학생금융캠프'는 대학생(손)자녀의 금융지식 함양과 취업준비를 위해 '금융인을 꿈꾸는 대학생을 위한 금융·증권 STORY', '애널리스트에게 배우는 미래의 산업이야기', '20대부터 시작하는 재테크 노하우', '이미지 메이킹', '스토리가 담긴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모의면접' 과정으로 구성됐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2~23일, 29~30일 2회(회차당 50명 초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김보배기자

하이투자證, 100억 규모 ELS 등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사장 서태환)은 28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ELS 1종, DLS 1종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HI ELS 786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18개월), 85%(24개월,30개월,36개월)이상이면 최대 21.0%(연 7.0%)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DLS 62호는 WTI 최근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 3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D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5%(3개월), 90%(6개월)이상이면 최대 3.0%(연 6.0%)의 수익을 지급한다. /김보배기자

어린이날, 용돈 대신 '펀드' 선물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선물로 '어린이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펀드'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재테크를 하면서 동시에 어린이 경제 교육이나 증여세 상담, 어린이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펀드를 말한다.

일반 펀드와 운용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투자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 우량주에 주로 투자한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해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어린이 펀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자녀의 이름으로 직접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 사용인감을 갖고 지점 내방 후에 해당 어린이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직접 펀드에 가입하려면, 증권사나 은행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자녀의 나이, 목돈 마련의 목적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다양한 '어린이 펀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장기 안목으로 운용 자산 불리기 '제격' 증여 상담·보험 혜택도

삼성자산운용이 선보인 '삼성착한아이예쁜아이 어린이펀드'는 엄선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시가총액 상위 200위 이내 종목에 주요 투자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 경제블로그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 운용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역사, 경제, 문화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의 '한국밸류 10년투자 어린이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도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 후 적정가에 매도하는 가치투자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의 '우리아이 3억 만들기 펀드'는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신영자산운용의 '신영주니어경제박사펀드'는 지난 2005년 설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대표적인 어린이 금융상품이다.

5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저평가된 가치주를 엄선해 장기 투자한다. 신영증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어린 자녀의 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한 보험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김민지기자 minji@

아우디A6 수리차량, 신차 둔갑 판매 의혹

차 인도 받은날 '휀다 볼트' 푼 흔적 발견
전문가 "항구서 급하게 결함 수리한 듯"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가 수리한 차량을 새차로 속여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보배드림 회원 소비자 박기명(가명)씨는 "얼마전 아우디 A6 신차를 구입했는데 휀다 볼트가 괜찮은 거냐"며 "차를 인도 받는날 본넷을 열어 차량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휀다 볼트캡을 벗기니 녹이 쓴것과 볼트를 푼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휀다 볼트 좌측 맨 앞쪽 볼트가 녹이 쓸어 있고 휀다 오른쪽 맨 앞쪽 볼트는 한번 푼 흔적이 있다"며 사고 차량을 판매한거 같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참존모터스 잠실점에서 아우디 A6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2~3개월에 걸쳐 국내로 들어온 아우디 A6에 대해 PDI(Pre-Delivery Inspection·배송전 검사)를 하면서 차체 결함을 수리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구에서 급하게 수리한 뒤 고객에겐 신차처럼 인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씨의 아우디A6 휀다 볼트에 녹이 쓴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볼트는 처음 장착되면 틀이 잡혀있어 나사를 대고 틀지 않는 한 풀리지 않는다"며 "신차는 볼트가 풀려있지 않은데 풀려있다면 이는 차체결함을 수리한 흔적"이라고 말했다. 항구의 PDI센터에서 이 아우디 A6을 점검하면서 수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입차의 경우 결함을 항구인근 센터에서 수리하면서 신차값이 팔아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차가 녹이 쓴다는 것은 바닷물로 인해 녹슬었다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고객이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우디는 고급 수입차 인데 살때부터 이렇게 볼트에 녹이 쓸면 앞으로 모든 볼트에 녹이 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거나 탁송과정 중 발생한 하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판매실적 혈안… 후속 서비스는 '모르쇠'

국내 소비자 불만 빗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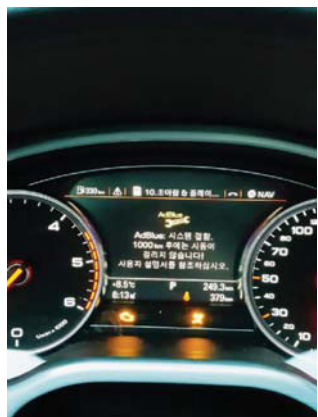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가 국내시장에서 상위권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애프터서비스(A/S)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들은 원활하지 못한 서비스 수준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아우디 A6 동호회 카페에 따르면 회원 'iam***'는 "요철을 넘을 때마다 '삐그덕', '찌그덕' 하는 소리가 난다. A/S가 봤자 주관적인 감성품질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하고, 회사 측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아이디 'fmg***' 회원은 "아우디의 폭풍할인 이유를 그동안 A/S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내비게이션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수백만원의 매립식 내비가 제 기능을 못한다.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A6 오너들이 티맵 등 다른 내비를 사용한다"며 "어떻게 이런 엉터리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우디 A6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은 "한국의 실정과는 상당한 갭이 있는 아우디 내비 문제가 있다. 14년 출고차에 12년 지도여서 (사측에) 얘기했더니 반영이 안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려고 한다. 구매자들이 집단소송 등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아우디 A8 60 TDI 출고차량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출처= 보배드림

아우디코리아의 차량 판매 후 A/S에 대한 불만은 비단 A6 오너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고차쇼핑몰 보배드림의 '벤츠오***' 회원은 "전 차가 아우디 A5였는데 서비스 만기 바로 지나서 차가 변속할 때 울컥거려 서비스를 맡겼는데 600만원 견적이 나왔다"며 "개인적으로 80만원에 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션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측은 미션 교체를 권고했다"며 "그 후로 서비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져 포기했다. 서비스센터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우디가 구매 목록에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차돌림***' 회원은 "A8 60 TDI 출고 당일 전시장 입구에서 2m를 이동했는데 경고등이 발생했다"며 "2차 출고 후에도 동일 경고등과 추가 경고등이 발생했다. 사측은 부품이 싱가포르에 있어 10일 이상 걸려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고장이 난 차를 새 차 가격에 팔아 고쳐줄 테니 타라고 한 것"이라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안 내리면 법무팀에서 해결한다고 한다. 아는 사람도 A8 시동 꺼져서 팔았는데 아우디 살 바엔 다른 차를 사라"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보배드림의 다른 회원들은 "이렇게 적반하장이니 대한민국에선 소비자 주권이 바닥이다", "아우디 A/S는 10년이 지나도 똑같다", "할인해서 판매량 올려도 이렇게 고객들 다 잃는거다", "결함 때문이 아니고 대처방식 때문이라도 아우디는 구매 목록에서 제외하겠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정필기자 roman@

기아자동차는 고객이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차량을 정비해주는 서비스인 '기아 레드 큐 박스'를 27일 분당 야탑 CGV에서 시작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영화 보는 동안 車정비 서비스

기아자동차는 고객이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차량을 정비해주는 서비스인 '기아 레드 큐 박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극장 내 전용공간에 차량 정비를 의뢰하면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차량 정비를 완료해 영화가 끝나면 차량 주차위치와 정비내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체인 CGV와 제휴를 맺고 이날부터 CGV 야탑점(경기도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향후 순차적으로 서비스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CGV 야탑점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기아차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서비스는 운영시간 내 전화예약(031-703-2220)이나 영화관에 마련된 레드 큐 박스 전용공간을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정필기자

현대차, 이사회 내 독립 경영委 설치

현대자동차가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했다.

현대차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내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투명경영위원회는 인수·합병(M&A), 주요 자산취득 등 중요 경영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돼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내이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또 투명경영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1인을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해 주주 권익을 위한 2중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정필기자

아우디, 차 한대 팔면 3500원 꼴 기부

고공매출 실적을 달성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회공헌 투자비용은 극히 미미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2014년 매출은 2조1500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폭스바겐 티구안 열풍 등에 힘입어 수입업체 '만년 4위' 꼬리표도 던졌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매출 실적은 국내 수입차 업체 중 최고다. 지난해 국내 판매대수는 총 5만7405대로 아우디가 전년 대비 19.8%, 폭스바겐이 38% 증가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지난해 기부금은 2억120만원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량 한 대당 3500원 꼴로 기부한 셈이다.

2013년도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판매대수가 4만5693대, 총 기부금 2억100만원으로 1대당 기부금이 4399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되레 감소한 금액이다. /양소리기자 10sound@

아우디, 협력사 쥐어짜기에 딜러들 "죽을맛"

딜러 주머니 털어 할인행사 본사 매출 챙기기만 급급 딜러사 "공정위 조사 필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성장세를 거듭하며 지난해 2만대 이상을 판매해 2조6619억여원 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국내 딜러사들의 과도한 출혈경쟁이 밑바탕이 된 협력사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우디의 한 딜러사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지엠을 제치고 국내 3위에 올랐지만 그 과실은 본사에만 돌아가는 구조"라며 "8개에 달하는 딜러사들은 서로 경쟁하느라 마진도 못 남기고 손해만 떠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8개인 딜러사가 조만간 한 개 더 늘어나 9개로 된다"며 "아우디코리아가 계속해서 성장하더라도 딜러사들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은 커녕 소위 판매 딜러사들의 마진을 희생시켜서라도 본사만 배를 불리는 수법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A6를 비롯한 아우디 전 차종에 한국 진출 이래 최대 할인율이 적용됐다.

이는 8월 31일까지 유로5 차량을 모두 판매 및 등록 완료시켜야 하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딜러사들간 출혈경쟁으로 이뤄졌다.

아우디 차종 대부분은 유로6를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A6, A7 등 모델의 재고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내부적인 문제로 할인이 적용됐고, 다른 모델까지 출혈 경쟁이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는 한 딜러는 "고객 입장에서는 지난달이 기회였다"며 "고객에게 돈을 쥐어주며 차를 구입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판매였다.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A6 모델에 20% 할인을 적용했을 경우 아우디코리아에서 6%의 자체 할인을 적용한다면 나머지 14%는 우리가 떠안았다"며 "이는 고스란히 딜러사의 손실로 돌아와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은 기아차 다음 3위인데 상생은 커녕 국내 영세 딜러사 쥐어짜기에 급급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손실을 봐가며 할인 판매를 해야 하는 이 상황에 전 딜러사들이 환멸을 느껴 이달부터 조건이 동결됐다"며 "아우디코리아의 방관 속에서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딜러사들과 아우디 내부적인 문제로 할인 축소와 동결이 된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져 왔다"고 토로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서비스센터 투자 인색… 품질 만족도 ↓

공식 서비스센터 25곳 뿐 1곳 당 4000여대 담당 5대 수입차 중 가장 적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는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가 25곳 밖에 없어 서비스 센터 투자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 센터 보유 수준이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 포드 등 5개사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별 서비스센터는 BMW가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 벤츠(34곳) ▲폭스바겐(28곳) ▲포드(27곳) 순으로 이어졌다.

아우디의 서비스센터 인색은 품질 만족도 하락으로 직결됐다.

최근 아우디 X6를 구매한 이성훈씨는 "아우디의 경우 센서 잔고장이 너무 심하고, 특히 4X4의 경우 승차감이 자가용 같아서 매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가 지난해 국내 신차 구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대당 품질 문제 건수는 아우디가 269건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형편없다.

아우디 서비스센터 1곳이 감당하는 하루 평균 수리 대수는 4000대에 달해 아침에 수리를 맡기면 오후 6시에나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우디는 국내 투자금을 확충하는 등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최근 3년간 국내 투자금액은 37억원으로 매출액의 0.08%에 그쳤다. 이는 BMW의 투자 금액인 113억원(전체 매출액의 0.22%)의 3분의 1수준이다.

이때문에 국내 고객들은 아우디 같은 경우 국내에서 돈벌고 재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기아자동차의 경우 고객이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차량을 정비해주는 신개념 찾아가는 정비 서비스 '기아 레드 큐 박스(KIA RED Q box)'를 선보여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카페·미용실에서 무선충전 하세요

삼성전자, 갤럭시S6·엣지 200곳 매장서 협업 마케팅

삼성전자 모델들이 협업 매장 안에 설치된 무선충전기에 제품을 올려두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편리하게 갤럭시 S6를 무선 충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무선 충전기능 알리기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후 드라마 제작지원(PPL)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 브랜드와 함께 협업 마케팅을 진행한다. 지난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는 주인공이 카페에서 갤럭시S6를 무선 충전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7일 탐앤탐스, 롯데백화점, 서가앤쿡, 이철헤어커커 등 국내 브랜드 200여개의 매장에 갤럭시S6 무선 충전기를 설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갤럭시S6 사용자들은 협업 매장 안에 설치된 무선 충전기에 제품을 올려두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쉽게 충전을 할 수 있다. 충전 중 잠시 전화를 걸고 받는 등 선 없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최초로 두 가지 무선충전 표준인WPC(Wireless Power Consortium)와 PMA(Power Matters Alliance)를 모두 획득한 갤럭시S6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자체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무선 충전용 커버 구매 없이도 간편하게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

무선 충전이 가능한 매장 정보는 갤럭시S6 공식 마이크로 사이트(www.samsung.com/sec/galaxys6)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양성운기자 ysw@

삼성 'SUHD TV' 러시아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임페라토르스키 요트 클럽에서 열린 파트너 초청 공식 출시행사에서 SUHD TV를 선보였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SUHD TV를 러시아에 공식 출시하며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임페라토르스키 요트 클럽에서 열린 파트너 초청 공식 출시 행사에서 SUHD TV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러시아 유명 예술가 안드레이 바르테네브는 기획한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제품의 뛰어난 화질과 디자인 특징을 보여줬다.

또한 SUHD TV를 포함해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TV에 타이젠 OS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즉각 반응하는 UI ▲한 번 클릭으로 모바일과 연결되는 쉬운 연동 ▲클라우드 게임 등 스마트 TV에 최적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LG, 가전업계 첫 '재활용 설계 우수 기업상'

ISRI 더그 크레이머 회장(왼쪽)이 LG전자 북미 테크놀로지 센터 난두 난다쿠마르 상무(가운데)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TV에 대한 친환경 노력과 활동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LG전자는 북미 재활용산업협회(ISRI)로부터 '재활용 설계 우수 기업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ISRI는 1600여 회원사가 가입해 있는 북미지역 최대 재활용 관련 단체로 가전업체에 이 상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활용 설계 우수 기업상'은 유해 물질 사용여부와 친환경적인 제조공정, 재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매년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수여된다.

LG전자 측은 "이번 수상으로 친환경 활동을 세계적으로 공인 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수상업체인 LG전자는 울트라 올레드 TV, 슈퍼 울트라HD TV 등 프리미엄 TV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ISRI는 "LG전자 프리미엄 TV에 수은이 함유되지 않은 패널,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소재, 재활용하기 쉽게 분해되는 모듈, 작고 가벼운 포장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협력사의 경쟁력은 우리의 '힘'

기술·재무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너지 극대화 노력

'밀어주고, 끌어주고…' SK하이닉스가 '상생'을 기반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협력사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윈-윈'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시장조사기관 IHS테크놀로지의 조사 결과 지난해 연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종합순위 4위로 도약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빅3(인텔·삼성·퀄컴)'의 격차를 좁히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익성도 탄탄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조 589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0.2% 증가한 실적이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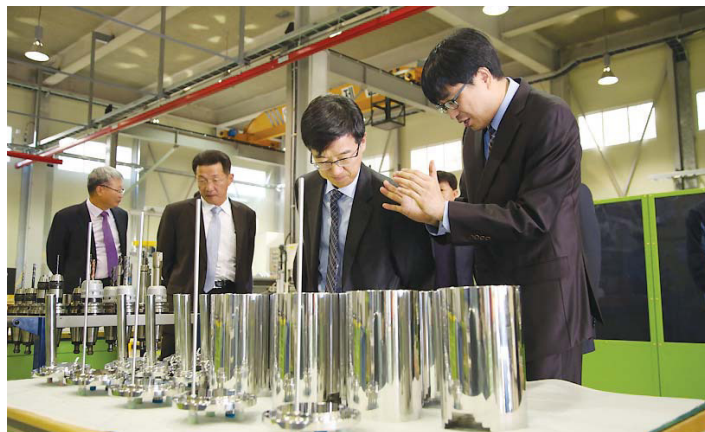
업계는 '기술력'을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상승 동력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협력사와의 시너지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의 '상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발전하지 못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SK하이닉스는 상생활동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2008년 동반성장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협력사 역량 강화와 신뢰 구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동반성장·공정거래 협약을 하고 있으며 기술·교육·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협력사를 돕고 있다. 매년 '동반성장 협의회 정기총회'와 '동반성장 데이'를 1회씩 열며 기술·정책 등도 공유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다. 2010년부터 SK하이닉스는 특허지원시스템을 개설해 반도체 장비·원자재 관련 국내 특허·실용신안 등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기술나눔 제도에 참여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등 특허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협력사의 설비투자·운영 자금 확대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보증펀드·동반성장펀드·동반성장보험·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SK하이닉스는 협력사의 자금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있다.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공정·생산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2차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제공

최근 2차 협력사를 찾은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은 "(SK하이닉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고 계신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금지급 체계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상생을 약속했다.

이밖에 SK 하이닉스는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품 단가 조정 제도, 특허분쟁 예방과 특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임치제, 협력사 임직원 대상 교육훈련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해외 우수 인재 확보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톱 탤런트 포럼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8월 21~23일 미국 시카고에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톱 탤런트 포럼'을 열었다. 해외에서 유학 또는 근무 중인 석·박사·경력사원을 채용하는 시스템이다.

사측에 따르면 톱 탤런트 포럼은 기존 채용과정의 실무면접을 대신해 자신의 주전공을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포럼 형식으로 발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인재 채용 방식이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등 총 4개 회사가 참여한다.

세계 유수 인재들이 모여 함께 전문지식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원자는 세션별 주요 기술 분류 중 자신의 전공과 가장 잘 일치하는 분야를 선택해 자신만의 로드맵을 제시하면 된다.

참여 가능한 세션은 ▲저연비차 ▲친환경차 ▲지능형차 ▲커넥티드카 ▲초경량차 ▲미래 모빌리티 ▲차량성능 ▲선행기술 ▲핵심부품 ▲금속 ▲비철재료 ▲공정 ▲정보기술(IT) 융합기술 등이다.

석·박사 과정 이상이거나 관련 경력이 있으면 채용 지원이 가능하다.

6월 30일까지 현대자동차그룹 채용 홈페이지(www.hyundai.co.kr/Careers.hub)에서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티빙스틱 2.0 라이트 TV로 아시아 1위 우뚝선다"

CJ헬로비전, 원하는 채널만 보는 '개인 TV 시대' 선언

"티빙의 다음 5년은 TV를 보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티빙스틱2.0으로 라이트 TV 스타일을 열어가겠다. 나아가 아시아의 TV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OTT)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우뚝 서겠다."

27일 서울 중구의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티빙 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석(사진) CJ헬로비전 대표는 'TV OTT 시장에서의 티빙의 도전과 의미'라는 주제로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출시 5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 N스크린 서비스 CJ헬로비전 '티빙'이 2.0 시대를 선언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티빙스틱의 리뉴얼 버전도 공개했다.

전용 단말기 '티빙스틱'을 통해 향후 TV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OTT)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시청자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티빙스틱은 PC,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방송 서비스 티빙을 보다 큰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TV OTT 지원 서비스다. TV, 모니터 등에 꽂으면 해당 화면에서 140여 개 방송 채널과 및 10만여 편 VOD를 즐길 수 있다.

김 대표는 "OTT라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으로 전세계 TV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OTT의 진화를 이끌어온 사업자로서 새로운 TV OTT 수요층을 겨냥해 티빙스틱 사업을 확대하고 한층 편리한 사용자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TV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 티빙스틱'은 속도와 음질, 리모컨 등을 통해 시청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제품이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UI를 도입해 3배 속도 향상을 꾀했다. 김 대표는 "티빙스틱 초기 마켓 트라이얼을 통해 이용자 상당수가 소파에 몸을 기대고 게으르고 편하게 즐기는 '린백'을 원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면서 "티빙스틱은 국내 최초의 리모컨 기반의 TV OTT로 편리함과 편안함 양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청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KT "드론 활용한 재난구호기술 발굴"

KT는 한국3D프린팅협회,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드론 재난구호 경진대회 및 드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민 기업 KT가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드론으로 각종 재난 및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총상금 규모 1500만 원의 본 공모전은 드론을 통한 재난구호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경진대회 부문, 창의 아이디어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제주항공 1분기 영업익 전년대비 331% 올라

제주항공은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49억원보다 4배 이상 오른 실적이다.

매출 역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3분기 1436억원보다 8억원 많은 14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57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양소리기자

신세계 본점에 면세점? "우린 다 죽어요"

6월 입찰 앞두고 신세계 관련 준비 착착
남대문 상인들 "수입상가 다 죽는다" 반발

신세계그룹(정용진 부회장)이 서울 중구 충무로 본점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최근 면세점 법인(신세계디에프)을 설립하고 본점 인근 옛 서울은행 본점을 매입하는 등 이번 면세점 입찰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수입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수입상가 등 기존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과 일본 관광객 등 외국인 손님들이 가뜩이나 백화점 등 대형 상가로 몰리는 데 면세점까지 들어서면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견해이다.

수입 의류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만약 인근 신세계 본점에 면세점이 들어온다면 우리 남대문 수입품 상인들은 다 죽을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반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수입 화장품 판매 상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오던 외국인 손님마저 신세계 본점으로 몰린다면 더 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점에 면세점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치밀하게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조선호텔과 신세계디에프(대표 성영목)를 앞세워 '남대문 시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 남대문시장상인회와 함께한 이번 협약은 거창한 계획에 비해 예산은 신세계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1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나며 면세점 유치를 위한 쇼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27일 서울 남대문시장 수입상가 부근. 시민들이 오가고있으나 상인들은 시장활기는 예전보다 눈에띄게 죽었다고 푸념했다./손진영기자 son@

신세계그룹은 2013년부터 '상생'을 외치며 총 3차례의 남대문살리기 MOU를 체결했다. 남대문시장과 '상생'하겠다는 신세계그룹의 의견과 달리 상인들은 신세계백화점 때문에 죽겠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당장 6월께 면세점 낙찰업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시장 상인 대다수는 신세계 본점에 면세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대문 시장의 또 다른 수입의류 상인은 "체감도 안 되는 신세계의 상생 이야기는 지겹도록 하면서 왜 면세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중요한 얘기는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신세계백화점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면세점까지 들어오다면 우리 수입의류 상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오늘부터라도 반대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서울에 시내면세점 3곳(대기업 2, 중견·중소기업 1)을 추가 허가하기로 하고, 6월 1일까지 입찰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대료가 비싼 공항면세점보다 수익성이 뛰어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노리는 유통 대기업들이 앞 다퉈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과 호텔신라(사장 이부진) 합작법인,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한화갤러리아(대표 황용득), 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 현대백화점(회장 정지선), 유진기업(회장 유경선), 롯데호텔(회장 신동빈) 등이 입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의 업체 선정 평가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과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과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이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홈플러스, 과징금 4억3500만원

공정위 "개인정보 제공 명시 소홀"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전단지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회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례(2012누40331)에 따르면,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사전에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 등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을 위해 쓰인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고객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토종 치킨 '비비큐', 美 NFL 경기장 진출

국내 최초 미국 내 92개 스타디움 입점 확정
메뉴 현지화·물류망 확보… 연 매출 2조4천억 예상

제너시스그룹(회장 윤홍근)의 치킨 브랜드 비비큐(BBQ)가 미국 미식축구리그(NFL) 경기장에 진출한다.

BBQ는 2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컬 호텔에서 윤홍근 BBQ 회장을 비롯해 프랭크 애비넌티(Francesco Abbinanti) 레비사 총괄 부사장, 찰스 워커 헤드셰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계 푸드 서비스 그룹 레비(Levy)사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로 BBQ는 레비사가 운영 중인 미국 내 92개의 NFL·MLB·NBA·NCAA 스타디움에 국내 최초로 입점을 확정했다. 이르면 6월부터 레비사가 운영하는 스포츠 스타디움 92개, 캠퍼스 125개 등의 일반 스탠드 매장과 키오스크 매장에 BBQ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매장 운영 수익 중 판매수수료 약 20~30%를 레비사에 지불한다.

BBQ는 NFL 스폰서십도 획득했다. 전세계 10억 인구가 시청하는 NFL 스폰서십을 가진 곳은 맥도날드·코카콜라·삼성·현대기아차 등에 불과하다.

미국 내 주력상품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텐더(닭가슴살), 윙(닭날개)으로 정했다. 회사 측은 BBQ 고유의 한국적인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미국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물류망을 위해 향후 미국 내 CK(Central Kitchen)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BBQ는 하루 평균 약 400만명 이상이 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NFL과 NBA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 경기장에서 거둘 연간 매출을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로드샵 약 3000개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특히 스타디움 매장 입점은 일반 로드샵 대비 공사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짧다. 경기장 매장 매출이나 효율이 로드샵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BBQ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BBQ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미국 대형마트에 '숍 인 숍(매장 내 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만들어 2020년까지 미국 내 1만개 매장을 열겠다는 목표다.

윤홍근 회장은 "2006년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시장에 진출한 BBQ가 레비사와의 MOU를 통해 프리미엄 스포츠 사업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종합 외식사업 분야에 진출한다"며 "이번 계약은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현재 전 세계 57개국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30여 개 국가에 500여 개 매장을 열었다. 올해는 중국 내 1000개의 매장을 추가로 열고 전 세계 3000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저렴해져서 가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종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랜드, 보석 SPA '라템' 론칭

업계 첫 보석 SPA 브랜드 부산에 첫 점포 오픈 예정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사진)의 패션 부문 계열사인 이랜드월드(대표 최종양)가 오는 7월 업계 처음으로 보석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 '라템'을 론칭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라템 1호점은 부산 서면에 자리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는 현재 채용 관련 사이트를 통해 라템의 점장·매니저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이랜드월드는 현재 보석 브랜드 오에스티·로이드·클루를 운영중이다. '라템'은 이랜드의 12번째 SPA 브랜드다. 보석은 의류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랜드그룹은 국내 패션시장이 SPA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자 지난 2009년 캐주얼 '스파오'를 론칭하며 국내 처음으로 SPA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어 2010년 여성 캐주얼 '미쏘', 2011년 속옷 '미쏘시크릿'를 론칭했다. 2013년에는 캐주얼 '후아유', 여성 정장 '로엠', 아동복 '유솔'을 SPA 브랜드로 전환했다. 같은 해 신발 '슈펜', 아웃도어 '루켄', 캐릭터 생활용품 '버터', 남성복 '엔씨포맨'도 론칭했다.

지난해에는 북유럽 패션 브랜드 '스탭'을 선보였다. 6월에는 업계 처음으로 전문 판매사 육성을 위한 SPA기업대학도 설립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SPA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패션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기존 의류에 한정됐던 SPA를 영역을 초월해 전 부문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크림生 올몰트맥주 '맥스' TVCF 온에어

하이트진로(사장 김인규)의 맥스는 5년째 함께하고 있는 장수 모델 하정우와 촬영한 새로운 TV 광고를 온에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광고에서 '10년 내공으로 완성된 부드러운 크림탑이 266초간이나 지속, 끝까지 깊고 풍부하다'는 메시지를 신뢰감있게 전달했다. '크림生 올몰트맥주'만의 자산인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크림탑(Cream Top)'이라는 새로운 맥주 선택 화두를 제시하며 맥스 크림탑은 266초 동안 지속된다.

이강우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이번 광고는 맥스의 강점인 크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첨단 제작기법으로 촬영을 했으며, 입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마시는 맛있는 맥주가 곧 맥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힘썼다"며 "앞으로 국내 최초 올몰트맥주 브랜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맥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깊고 진한 맛을 더하고 호프의 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산 스페셜 몰트를 첨가하고 아로마 호프를 20% 이상 증량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네팔 파견 아웃도어 업계, 현지 상황 '촉각'

블랙야크·트렉스타 팀 등 모두 '무사' 원정대, 현지 구조 활동·구호 물품 지원

지난 25일 발생한 네팔 강진으로 아웃도어 업계에 비상에 걸렸다.

블랙야크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에 나선 김미곤 대장 원정대 4명과 블랙야크 MTB 안나푸르나 라운딩팀 4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블랙야크 측은 전날 7.8 규모의 강진이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원정대와 라운딩팀의 안전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현재 하산해 인근마을에서 구조활동을 돕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MTB 라운딩팀은 27일 밤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28일 예정된 '2015 블랙야크 히말라야 트레킹'은 전면 취소했다. 블랙야크는 현지 매장 피해 상황도 수시로 확인 중이다. 네팔 카트만두 타멜에 위치한 1호점의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매장은 큰 피해는 없지만 주변 건물들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계속 문제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트렉스타 역시 현지 원정대 안전 파악에 나섰다. 회사 측은 산악인 김홍빈 대장을 비롯해 원정대 7명 전원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인근마을 고락셉으로 철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떠났던 로체 원정대는 5월 29일까지 세계 4번째 봉인 네팔 로체를 등정할 계획이었다. 향후 일정은 김홍빈 대장과 조율할 방침이다.

엄홍길 대장의 휴먼스쿨 프로젝트를 후원해온 밀레는 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할 지를 논의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패션 업계, "가정의 달 특수 잡아라"

아웃도어 의류 할인 봇물

패션 업계가 선물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할인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다. 특히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스포츠 용품이 할인 품목으로 나오고 있다.

머렐은 내달 31일까지 구매 금액별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1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20만원 이상 구매 시 4만원, 30만원 이상 구매 시 6만원이 할인 된다.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아웃도어 티셔츠도 준다.

르까프도 다음 달 말까지 의류·신발·스포츠 용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5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도심에서 세련된 스포츠웨어 연출이 가능한 반다나를 증정한다.

어린이 날을 앞두고 키즈 상품도 출시됐다.

센터폴은 디즈니 마블코믹스와 손잡고 '센터폴 어벤져스 키즈 에디션'을 한정출시해 이달 초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티셔츠 5종, 티셔츠와 반바지 세트 2종, 래쉬가드 세트 2종, 운동화 3종, 스냅백 3종 등 총 15종으로 구성됐다. 각 제품에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등의 영웅 캐릭터가 삽입됐다.

이 외에 코베아는 5월 23, 24일 1박 2일 간 '2015 봄 코캠프'를 가평 자라섬 오토캠핑장에서 연다. 23일 저녁 7시부터는 엠넷 코베아 캠핑페스티벌 공개방송도 진행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CJ, '노르웨이 오메가3 포 우먼' 출시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여성에게 특화된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노르웨이 오메가3 포 우먼'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혈행 건강과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DHA/EPA를 식약처 권장량인 500㎎만큼 담았다. 청정한 노르웨이 바다에서 자란 멸치 등 작은 어종을 원료로 사용했다.

특히 여성에 특화된 제품인 만큼 유해산소를 막아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 피부 건강을 위한 비타민A가 하루 필수량만큼 들어있다. 부원료로 콜라겐까지 함유했다. 이마트와 올리브영·CJ온마트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1만3000원(60캡슐·1개월분)이다.

웅진식품, 탄산수 시장 도전… '빅토리아' 2종 출시

탄산수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웅진식품이 도전장을 던졌다.

웅진식품(대표 최승우)은 청량한 맛을 살린 '빅토리아'(Victoria) 2종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빅토리아는 타사 제품보다 강한 탄산에 상큼한 천연 라임향과 레몬향을 더해 청량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명은 탄산수의 상쾌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이과수·나이아가라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손꼽히는 빅토리아 폭포에서 따왔다. 전국 소매점과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500ml 1병에 1400원이다.

전광대 웅진식품 마케팅팀장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 탄산수가 건강음료 또는 다이어트 음료로 손꼽힌다"며 "온라인 채널을 통하면 빅토리아를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탄산수 시장은 해를 거듭할 수록 성장하고 있다. 2011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은 2013년 200억원, 2014년 400억원으로 매년 두 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 대비 최소 두 배 이상인 600억~8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여유로운 금빛 해안 골드코스트로 출발

골드코스트·숨겨진 보물 탬보린 마운틴까지
KRT 단독 제공 6대 특전, 여행객들에게 인기

호주의 인기 관광도시 골드코스트와 숨겨진 보물 탬보린 마운틴 여행이 인기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 절호의 기회다. /호주관광청 제공

여행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 KRT(대표이사: 장형조, www.krt.co.kr)가 특별상품을 내놨다. 호주의 시드니만을 여행하던 평범한 코스를 벗어나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브리즈번 상품을 선보여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브리즈번은 호주 전체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로 호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손꼽는 곳. 연평균 기온 20도의 날씨와 세련된 도시, 그리고 청정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호주의 대표적인 여행지이다. 특히 브리즈번은 최근 인기 휴양지로 급부상한 골드코스트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함께 묶어 여행하기에도 금상첨화다.

골드코스트는 4개의 시가 합쳐진 연합도시 휴양지로 다양한 테마파크와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서퍼들에게 인기가 높다. 골드코스트의 Q1 전망대는 골드코스트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랜드마크다. 전망대에 오른 여행객들은 아름다운 경관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이 여행 상품을 선택한 여행객들은 전망대에 올라 골드코스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로맨틱한 여행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탬보린 마운틴은 골드코스트의 숨겨진 보물이라 불리는 곳이다. 우리나라 사람에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며 호주 특유의 청정 자연을 감상 할 수 있다. 정상의 아기자기하고 고풍스러운 마을을 산책하며 도심에선 느낄 수 없던 여유로움도 한껏 느낄 수 있다.

KRT의 호주 브리즈번 여행 상품은 핵심 관광과 자유일정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오직 KRT에서만 단독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국적기 이용, 특급호텔, 샴페인 크루즈 승선, Q1 전망대 스카이 포인트 등 6대 특전을 제공해 여행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상품은 KRT 홈페이지(http://www.krt.co.kr)와 대표번호(1588-0040)로 문의 가능 하다. 오는 5월 3일 롯데 홈쇼핑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홈쇼핑 방송 중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6대 특전 이외에 추첨을 통한 무료여행 1인, 롯데 면세점 1만원 선불권 등 다양한 추가 특전도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한식 푸드트럭, 세계인 눈·입 사로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公
'2015 밀라노엑스포' 연계
내달 7일까지 한식 홍보

한국 음식을 맛보고 우리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식 푸드트럭.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난 24일부터 5월 7일까지(현지시간 기준)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한식 푸드트럭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지난 24~30일 한식 푸드트럭 시식 체험 행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밀라노 도심 까도르나(Cadorna)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통 궁중요리인 잡채부터 일반인들이 즐겨먹는 닭강정·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퓨전화한 불고기김치번 등 다양한 한식과 디저트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1주일간 한식 이미지와 'Imagine your Korea' 슬로건 등으로 래핑된 푸드트럭이 밀라노 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의 사전홍보와 한식 알리기를 전개한다.

한국관광공사 음식쇼핑팀 설경희 팀장은 "이탈리아에서는 푸드트럭 행사가 흔하지 않은 독특한 이벤트로, 이번 행사로 한식문화를 홍보하고, 열심히 준비한 밀라노엑스포 한국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0초의 상상력… 지하철 영화 도전하세요

서울메트로, 7월 15일까지 공모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에 상영할 작품을 7월 15일(수요일)까지 공모한다.

작품 공모 대상은 지하철 상영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 90초 이내의 초단편 영화이다.

초단편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릴포트(www.reelport.com)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출품작 중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국제경쟁부문 20편과 국내경쟁부문 6편, 총 26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 될 예정이다.

국제경쟁부문은 서울메트로와 베를린지하철이 공동 선정한다.

온라인에서는 서울메트로와 국제지하철영화제 홈페이지, 모바일웹, SNS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수상작은 온라인 관객 투표를 통해 총 4편이 선정된다. 1등 3000 유로(390만원), 2등 2000 유로(260만원), 3등 1000 유로(130만원), 특별상에 1백만 원(국내작 1편) 등 총 880만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진다.

강강술래 "가정의 달, 나들이 걱정마세요"

공연티켓·스파이용권 증정

외식문화기업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씀씀이가 커지는 5월 가정의 달에 다채로운 문화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장에 설치된 응모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리솜포레스트 헤브나인힐링스파 이용티켓(1인2매)을 준다. 또 강강술래 4월 결제영수증을 지참하고 6월 말까지 방문하면 스파이용권 4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홈페이지(www.sullai.com) 문화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명보아트홀 지하 1층 다온홀에서 공연되는 '드로잉 피노키오' 공연티켓(1인2매)도 증정한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뱃살을 빠르고 확실하게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벗의 추천도서 '하루 한동작 뱃살'을 증정한다. 부위별로 나눠 총 42개 운동 동작을 소개하는 책이다. 잘나가는 글로벌 마케팅부터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난 작은 기업 마케팅까지 56가지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마케팅 성공사례 상식사전'도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대한치매학회 신임 회장에 이대목동병원 최경규 교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최경규 교수(사진)가 지난 4월 11일 개최된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년.

최 교수는 "치매에 대한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 교수는 지난 2011년에도 대한치매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양천구 치매지원센터장으로서 지역사회치매 예방·교육·진단과 치료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또 뇌 조직은행 구축 및 치매진단과 약물·비약물 치료기법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7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는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 사업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호산업 인수 '박삼구 vs 김상열' 2파전

오늘 본입찰 마감… 자금동원력이 관건
호반건설 '자금력' 충분, 정치적 고려 변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금호산업의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적격인수후보 명단에 올랐던 사모투자펀드(PEF) 4곳의 본입찰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래 주인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전국구 기업 도약을 꿈꾸는 호반건설의 2파전이 예상된다.

27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산업 본입찰은 28일 오후 3시 마감된다. 본입찰에는 지난 2월 말 예비입찰에 참여해 적격인수후보 명단(숏리스트)에 포함된 호반건설, MBK파트너스, IMM PE, 자베즈파트너스, IBK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펀드 등 5곳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모펀드 4곳은 실사 결과 금호산업 인수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본입찰 불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호반건설의 단독 본입찰 참여를 의미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2파전이 될 공산이 커졌다.

박삼구 회장은 본입찰에서 제시된 최고 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산업 인수, 항공사업 발편 마련 가능

금호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0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에 불과하지만 뒤에 숨은 지분 관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지분 30.08%)다. 따라서 금호산업을 지배하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쥘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 지분 46.00%를 보유할 뿐 아니라 금호터미널(지분율 100%), 금호사옥(79.90%), 아시아나개발(100%), 아시아나IDT(100%)를 계열로 거느리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현대산업개발과 유진기업이 면세업 사업에 진출하고, 대림산업이 호텔사업에 뛰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시장은 호반건설의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도 이 같은 흐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사업 한 우물만 파온 호반건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금호산업을 인수, 항공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운송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자가 결정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탄 싸움 호반건설 유리, 정치적으론 부담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이번 매각 작업을 최고가 원칙에 근거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박삼구 회장과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현금동원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호산업의 가격은 최근 주가가 2만~2만3000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지주회사를 통한 그룹 지배력나 아시아나항공 등 인수 프리미엄 등을 계산하면 최고 1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탄 싸움에서는 호반건설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호반건설은 당장 동원 가능한 현금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2조원까지 확보한 상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가격이 치솟으면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호반건설 자금력으로 볼 때 기우에 불과하다"며 "자금 측면에서만 보자면 박삼구 회장보다 호반건설이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마지막 호남 재벌이라는 금호산업의 상징성에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모 건설사의 경우 호반건설을 도운 게 밉보인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호남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정치권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우선청구매수권이 있더라도 실탄만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호반건설에 유리하다"며 "다만 이번 인수전 결과에 따라 호남 민심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채권단이나 김상열 회장이나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대우건설은 27일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1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우건설 제공

주택가격전망지수 4년 만에 최고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24.9를 기록하며 2011년 1분기(13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30일부터 14일간 수도권 거주자 346명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주택거래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6개월 뒤 매매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24.9로 조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다.

현재 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주택가격평가지수'도 124.4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요자들이 최근 6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는 '전세금 급등에 의한 실수요자 매수 전환'이 5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동산 거래시장 전반의 소비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 매매시장은 6개월 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50.6%). 6개월 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52.3%)하는 응답자는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직전 조사에서는 6개월 전·후를 모두 보합으로 전망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윤정원기자 garden@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시티 5차 분양

현대산업개발은 5월 경기도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마지막 공동주택인 '수원 아이파크 시티 5차'를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15층, 전용면적 31~74㎡, 총 550가구 규모다. 아이파크 시티에 공급되는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원룸부터 실속형 중소형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됐다.

단지 1~2층 근린생활시설과 인근 이마트, 롯데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경수대로, 덕영대로 등의 도로망을 갖췄고, 삼성디지털시티와 동탄·광교테크노밸리도 가깝다.

현대산업개발은 기존 단지 잔여가구에 대한 특별분양도 실시한다. 즉시 입주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약 99만㎡(30만평) 부지에 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조성되는 초대형 민간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도시 계획부터 기획·설계·시공·분양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단지 조성을 넘어 특화된 디자인과 평면 설계, 친환경 조경으로 차별화를 이뤘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전경.

세계적인 건축가 벤 판 베르켈과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조경설계가 로드베이크 발리옹이 설계에 참여해 친환경 디자인 도시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자연을 모티브로 삼아 파크·워터·빌리지·시티·필드 등 총 5가지 타입으로 입면 디자인이 설계됐다. 또 테마별로 나무의 종류, 조형물 등을 달리해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 신개념의 '아일랜드' 조경이 적용됐다.

약 2.6㎞ 길이의 생태하천이 단지를 연결하고 있다. 생태하천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돼 산책이나 하이킹 등이 가능토록 했다. 8만㎡ 규모의 근린공원도 들어서 친환경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가운데 9홀 규모의 공군골프장이 있어 일부 동에서 골프장 조망도 된다.

1단지 남측으로 곡정초교가 개교했고, 4단지 남측으로 고등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건립해 수원시에 기증한 지상 2층 연면적 2500㎡의 한림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단지 주변으로도 남수원초, 곡반중, 화홍중, 권선중·고 등 10여개의 학교가 있다.

분양사무실은 수원버스터미널 인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94번지 일대에 마련돼 있다. 분양문의 031-232-1700

/박선옥기자

리메이크 앨범 '폴 인 메모리' 발표한 가수 **거미**

가수 거미(34·박지연)가 지난 17일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했다. 방송이나 콘서트 무대에서 동료 아티스트와 선배 가수의 노래를 부른 적은 있지만 리메이크 음반을 발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 인 메모리(Fall In Memory)'라는 앨범 제목처럼 추억에 잠기기에 좋은 1990년대 발라드 곡을 엄선해 담았다.

애절한 목소리, 슬픔 아닌 행복감에서 비롯

타이틀 '해줄 수 없는 일', 부담 컸지만 애착도 가장 커

남자친구 조정석 덕분에 오히려 이별 노래하기 수월해

◆ 익숙하지만 새로운 노래

최근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서 시작된 1990년대 복고 열풍을 거미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다.

"요즘 90년대 음악이 다시 사랑받고 있는데, 대부분 댄스곡이더라고요. 당시엔 록발라드 등 다른 장르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발라드 곡들 위주로 다시 불러봤죠. 리메이크를 하다보면 장르를 아예 바꾸거나, 어려운 코드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전 그게 아쉽고 또 어렵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원곡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을 택했어요. 변화가 너무 없다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제 목소리로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단 생각이 들어서 남자 가수들 곡을 리메이크 하게 됐죠."

타이틀곡은 박효신의 데뷔곡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메가 히트곡이란 점과 남자 가수의 노래라는 점, 특히 친한 친구의 노래라는 점이 거미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걱정이 컸어요. 녹음을 마치고 효신이에게 검사받는 기분으로 들려줬는데, 구석에 가서 이어폰을 끼고 진지하게 듣고 오더니 '잘 했다'고 해주더라고요. '해줄 수 없는 일'은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노래를 듣는데 세월이 이렇게나 많이 지났구나 싶었거든요.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도 추억에 빠졌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리라 믿어요. 음악의 힘이 그런 거 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계절, 공기, 냄새 등이 떠오르면서 그 때로 돌아가는 느낌이요. 전 이 노래만 들으면 연습생 시절이 생각나요."

◆ '기술'로 노래하는 거미?

앨범 수록곡들에 대한 추억을 하나씩 풀어놓는 그의 모습은 가수 거미가 아닌 가수를 꿈꾸는 소녀 박지연이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인터뷰에서 음악 이야기만 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이 질문은 피해갈 수 없었다. 바로 남자친구 조정석에 대한 것. 그는 지난 2월 배우 조정석과의 열애 사실을 인정하고 연예계 공식 커플이 됐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긴 해요. 저나 그 친구나 각자 일하는데 서로가 연상되면 안 좋은 것이니 자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답하는 게 제 도리라 생각해요. 조심할 이유는 있지만 숨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음악관만큼 연애관도 뚜렷했다. 사랑에 푹 빠져 한창 행복할 때 이별 노래를 부르면 어떤 기분일까.

"저도 예전에 좀 의아했던 부분이었어요. 결혼하거나 공개 연애하는 선배들이 이별 노래를 부르면 묘하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선배가 '듣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떠올리며 듣지, 가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노래를 듣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주시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죠. 노래의 감정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가 가수니까 가수의 입장만 생각했던 거예요(웃음)."

그는 자신의 애절한 목소리는 슬픈 기억이 아닌 행복함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오히려 누가 옆에 있는 게 음악 할 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없을 땐, 그러니까 '연애세포'가 죽어있을 땐 막연하게 옛날 기억 끌어와서 기술적으로 노래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 노래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게 느껴져요. 이별 노래를 부를 땐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절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슬퍼져요. 가수가 가사와 똑같은 일을 겪을 순 없어요. 노래와 감정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웃음)."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사진/씨제스 제공

star bag

제주도에서 비밀 결혼

방송인 **김나영**이 27일 제주도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이날 "결혼식은 10여명의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진행됐고 신혼여행지도 제주도"이라고 전했다. 김나영은 연예인이 아닌 신랑을 배려해 나이와 직업 등 인적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애니 '홈' OST 참여

걸그룹 EXID 멤버 **솔지**와 하니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홈'의 OST에 참여한다. '홈'은 새로운 집을 찾아 지구에 온 부브 종족의 사고뭉치 대표주자 오와 당찬 지구 소녀 팁의 예측불허 모험과 우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솔지와 하니는 영화 홍보대사로도 선정돼 활약할 계획이다. '홈'은 다음달 21일 개봉 예정이다.

다큐 영화 응원 나서

배우 **권율**이 다큐멘터리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감독 이길보라)의 응원에 나섰다. 권율은 27일 오후 8시 CGV 압구정에서 열린는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작 화면 해설 재능기부를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에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응원군단 제안도 단번에 수락했다.

라디오에서도 하차

최근 과거 인터넷 팟캐스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개그맨 **장동민**이 라디오 방송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KBS 측은 27일 "장동민이 KBS 쿨FM '장동민 레이디제인의 2시' DJ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장동민은 이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생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홀로서기 성공한 여성 보여주고 싶었다”

뮤지컬 ‘쿠거’ 원작자 도나무어

뮤지컬 ‘쿠거’

한국 배우·음악 편곡 “원더풀” 뉴욕 공연에선 배우로도 활약

네일 케어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수수한 여자 릴리는 아들뻘인 남자 벅과의 사랑을 통해 자아를 되찾는다. 뮤지컬 ‘쿠거’는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다. 쿠거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과 동물의 습성을 빗대 만든 신조어다. 2인극 ‘쿠거 카바레’로 시작한 후 2012년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을 했다. 2년 동안 300회 이상 전회 매진시킨 ‘쿠거’가 아시아 최초로 4월 한국에서 개막됐다.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원작자 도나무어(53)는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항상 나를 소재로 글을 쓴다”고 말했다.

“10년 전 뉴욕에서 쿠거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용어는 없잖아요. 의문이 생겼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했죠. 저도 몇 년 전 9살 어린 남자와 데이트를 해봤거든요. 경험들을 토대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어머니, 여성이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하고 싶었죠. 작품에서 릴리와 벅의 사랑이 이뤄 지지 않은 것도 자립한 여성, 혼자 있는 상태가 당당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존재감을 느끼는 여성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와 맺는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도나무어는 ‘쿠거’ 뉴욕 공연에서 욕구를 숨기고 있는 방송인 클래리티로 분해 무대에 올랐다.

여성에게 내재된 성(性)의 가치를 ‘세이 예스(Say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11살부터 TV 쇼에 출연했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외향적인 성격이었죠. 다만 자존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쿠거’가 그런 관객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쿠거’ 한국 공연을 본 도나무어는 출연진과 편곡된 음악에 대해 “원더풀”이라고 답했다.

“편곡이 좋아서 감탄했어요. 바뀐 음악을 듣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는 영감을 얻었죠. 공연을 보면서 한국 남자 관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뉴욕의 남자들보단 못했지만 즐겁게 웃고 있더라고요. ‘쿠거’는 절대 남자를 비하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여자들끼리 있을 때 하는 이야기를 보여줄 뿐이죠. 남자들도 즐길 수 있는 이유예요. 한국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재능 있고 실재감 있게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특히 벅 역을 맡은 이주광 배우가 정말 귀엽더라고요.(웃음)”

‘쿠거’는 7월26일까지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베스티 다음달 8일 컴백 4인조 걸그룹 베스티가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컴백한다. 베스티는 다음달 8일 두 번째 미니앨범 “러브 이모션(Love Emotion)”을 발표한다. “무결점 몸매 걸그룹”이라고 불리는 베스티의 각선미가 돋보이는 티저 이미지도 함께 공개했다. /YNB엔터테인먼트

‘금발에 핫팬츠’ 김예림 파격변신

미니앨범 ‘심플 마인드’ 발표

김예림(사진)이 1년 5개월 만에 세 번째 미니앨범 ‘심플 마인드’를 발표했다.

27일 서교동 레진코믹스 V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김예림은 타이틀곡으로 ‘알면 다쳐’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윤종신이 작사·작곡했다. 처음에 듣자마자 ‘이 노래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알면 다쳐’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너무 다 알면 서로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로 당돌한 20대 여성의 연애사를 풀어냈다. 윤종신의 곡을 타이틀로 했지만, 지난 앨범들과는 다르게 프라이머리·빈지노·샤이니 종현 등 다양한 음악적 성향을 가진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몸매가 드러나는 흰색 핫팬츠에 가죽 재킷을 걸친 파격적인 의상으로 등장한 김예림은 “이번 앨범에서 외모적으로 많은 변화를 줬다”며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머리 색이다. 전에 조용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금발이 낯설었다”고 말했다. /이유리기자 yuril@

쓸모 있어야 살아남는 잔혹한 진실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의 오프닝은 강렬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주인공 일영(김고은) 앞에 엄마(김혜수)는 얼굴에 피를 묻히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있다. 한 손에 칼을 든 엄마는 일영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소리로 묻는다. “너 왜 태어났니?” ‘차이나타운’은 이 질문의 대답을 향해 앞으로 내달리는 영화다.

일영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하철역 코인로커에 버려진 소녀다. 일영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발견된 코인로커 번호 10에서 따왔다. 거지들 손에서 자라나던 소녀는 도박중독에 빠진 형사의 손에 이끌려 차이나타운에 팔린다. 그곳에서 만난 엄마는 소녀에게 말한다. “쓸모가 없어지면 너도 죽일 거야.” 소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생존법칙으로 어두운 세계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갈등의 시작은 일영과는 전혀 다른 생존법칙을 지닌 석현(박보검)의 등장부터다. 석현은 일영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났다. 그러나 억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능동적인 태도로 삶과 마주한다는 점에서 일영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있다. 엄마의 생존법칙에 의문을 품지 않았던 일영의 삶은 석현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을 예감한 엄마는 일영을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시험에 빠트린다.

신인 감독답지 않은 리듬감… 김혜수·김고은 호흡 매력

일영이 석현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전반부와 일영과 엄마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후반부는 극의 분위기도 성격도 전혀 다르다. 하지만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극 전개로 관객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 신인 감독답지 않은 리듬감 있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영화는 남성영화 못지않은 폭력의 세계를 그린다. 그러면서도 절제된 연출로 폭력의 세계를 바라본다. 김혜수와 김고은이 빚는 연기 호흡은 매력적이다. 특히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김고은의 열연은 그가 왜 충무로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영화에 등장하는 차이나타운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영화적인 공간이다. 자신의 쓸모를 증명받기 위해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삶이 우리의 현실과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느낀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일영의 마지막 모습이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이유다. 청소년 관람불가. 4월 29일 개봉.

THE WORLD'S PREMIER ELECTRONIC MUSIC FESTIVALS

JUNE 12.13 2015

OLYMPIC STADIUM
SEOUL // KOREA

상상 그 이상의 새로운 경험! 절대 놓칠 수 없는 올여름 단 이틀간의 초대형 파티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전세계 탑 DJ 아티스트들의 무대 메인 스테이지, 충격적 사운드와 생생한 라이브음악을 전하는 라이브 스테이지,
일렉 음악의 역사와 스피릿을 전할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지, 뜨거운 여름의 상징적인 스테이지가 될 매직비치 스테이지까지!
단 2일간, 4개의 스테이지에서
세계적인 별들 **Hardwell, Nicky Romero, Skrillex, Alesso, David Guetta, Knife Party, Porter Robinson, Galantis, CL , 2manydjs** 등
100여명이 넘는 최정상 아티스트들과 함께 상상 그 이상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UMFKOREA.COM | /UMFKOREA /UMFKOREA /UMFTV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5년 6월 12일(Fri), 13일(Sat) 잠실종합운동장

HOST UCKOREA | ORGANIZER HNT 하나투어 GOMTV NV ENTERTAINMENT | SPONSOR BCcard UnionPay Carlsberg METROCITY MOËT & CHANDON samick | PARTNER 지니뮤직 genie ARMANI / DOLCI SOCAR Gusttimo twitter | SUPPORTER 주한미국대사관

오현경, 아침마다 악녀로 변신

tvN 일일드라마 외출

오현경과 홍아름. /손진영기자 son@

오현경이 아침드라마를 통해 희대의 악녀를 연기한다.

오현경은 5월 4일 첫 방송되는 tvN 아침드라마 '울지 않는 새'(극본 여정미·연출 김평중)에서 욕망의 화신 천미자로 분한다. 천미자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돼 온 밑바닥 인생에 치를 떨고, 자신의 허세와 허영을 위해 부유한 가정과 상류사회에 대한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인물이다.

27일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오현경은 "아픔이 있는 악녀를 보여주고 싶다"며 "천미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어릴 때 누려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 잘못 표출되는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한다"고 악역에 임하는 자세를 전했다.

전작 MBC '전설의 마녀'를 함께 했던 홍아름이 오현경과 맞붙는 오하늬 역을 맡았다. 총 100부작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9시40분 방송된다. /이유리기자 yuril@

박한별·다솜 "정글 여전사는 나"

'정글의 법칙' 19기 합류

박한별

다솜

배우 박한별과 그룹 씨스타 다솜이 SBS '정글의 법칙' 새 멤버가 됐다. 여배우와 여 아이돌이 동시에 생존 경쟁을 벌이는 건 처음이다.

박한별과 다솜이 출연하는 '정글의 법칙' 19번 째 장소는 신비의 섬 얍이다. 미크로네시아제도에 위치한 얍은 때 묻지 않은 원시림과 바다,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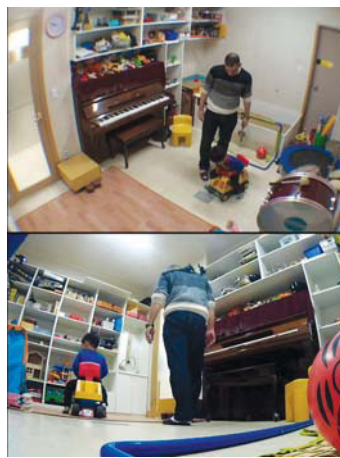
박한별은 '정글의 법칙 인 얍'을 통해 데뷔 후 처음 리얼 예능에 도전한다. 다솜과는 바다를 사랑하고 수영을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다 생존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 그가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은다.

배우 류승수·이정진·배수빈·윤상현·이이경, 가수 은지원·정진운·강남도 함께 한다. 예능에 자주 출연하지 않는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글의 법칙 인 얍'은 5월 중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이웃집 외국인들의 한국 정착기

◆ **KBS1 '이웃집 찰스'** 오후 7시30분

이바일로 가족은 심리치료센터를 찾는다. 멀어져 가는 아빠와 아들 칼로얀의 관계를 진단을 통해 극복해 본다. 게스트 홍석천은 무뚝뚝한 부산 남자 장인인 권상규씨를 위해 초특급 애교를 선보인다. 로버트 할리는 샤워할 때마다 비누 칠만 일곱 번 하는 이유를 고백한다. 인도에서 온 기러기 아빠 라왓과 자르디슈의 한국 정응기가 방송된다.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15분

설 특집에서 화제를 모은 후 정규 프로그램 편성을 확정짓고 '룸메이트 시즌2' 후속으로 첫 방송된다. 기존에 출연했던 채정안·김정난·선우선·김지훈 외에도 새로운 멤버들이 다수 합류해 새로운 케미를 선보인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이아현과 허각은 합창 수업에 참여하고, 가인과 태민은 무용 수업에서 발레에 도전한다. 조영남은 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그는 친구들을 위해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작은 음악회를 펼쳐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오후 10시

'효자 상진 씨의 봄'이 방송된다. 태안 법산 마을에서 20년 경력 낙지잡이 꾼으로 사는 상진 씨(51)는 혼자 계신 어머니 강정희 씨(76)를 모시고 사는 마을에서 유명한 효자다. 효자 아들과 어머니는 맛선 문제로 다툰다. /정리=이유리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8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27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17회)	15 불굴의 차여사 (7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95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10 곰디와 친구들(한국어)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112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압구정 백야 (136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후아유 – 학교 2015 (2회)	00 화정 (6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20회)	45 리얼극장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여인의 향기>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45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도전, 한겨레 학교	40 문제적 남자 (9회) (재)	00 2015 테이스티로드 (15회)			◆ 프로야구 KT vs 두산 (MBC SPORTS+) 롯데 vs 넥센 (SPO TV+, SPO TV) NC vs SK (KBS N SPORTS) LG vs 삼성 (SKY TV) 한화 vs KIA (SBS SPORTS, IB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00 겟잇뷰티 2015 (8회)	00 쇼킹 70억 (26회)	00 수퍼맨 리턴즈	
20시	50 JTBC 뉴스룸	10 초인시대 (3회) (재)	00 오늘 뭐 먹지? (40회) 30 오늘 뭐 먹지? (12회)	00 <Wild, 최후의 승자> 자연의 신세계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6회)	20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 (5회) (재)	00 올리브쇼 2015 (14회)	00 코스모스 (8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6회) 30 오늘 뭐 먹지? (57회)	00 소셜 컨트롤 (11회) 30 소셜 컨트롤 (12회)	00 프라이버시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2회)	00 식샤를 합시다 2 (8회)	00 올리브쇼 2015 (14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2> 비밀벙커, 늑대굴		
24시	20 마녀사냥 스페셜 (89회)	20 현장토크쇼 TAXI (377회)	00 라면 플레이버 (4·3회) 20 괜찮아, 사랑이야 (2회)	00 쇼킹 70억 (26회)	00 인크레더블 매직쇼	

LPGA 10개 대회 중 한국계 8승 독식

리디아 고,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 우승
곽민서, 아쉬운 4위 "긴장감에 체해"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이자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18)가 27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LPGA 투어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6507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4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의 성적을 냈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한 그는 모건 프레슬(미국)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 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전에서 먼저 기회를 잡은 쪽은 프레슬이었다.

프레슬은 약 3m 거리에서 버디 기회를 잡았지만 이를 놓치며 리디아 고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18번 홀에서 다시 열린 두 번째 연장에서 리디아 고는 세 번째 샷을 홀 1.5m에 붙였다. 프레슬은 약 2m 조금 넘는 거리였다. 리디아 고는 침착하게 퍼트를 성공시켜 버디를 잡은 반면 프레슬은 이마저도 다시 실패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리디아 고는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2월 호주오픈에 이어 시즌 2승째를 거뒀다.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7승을 기록하게 됐다.

또 이번 우승으로 상금 30만 달러(약 3억2000만원)를 벌어 시즌 상금 90만8810 달러로 상금 부문 선두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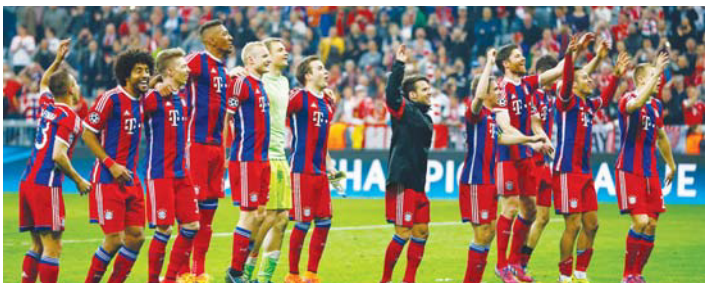
리디아 고의 우승으로 한국계 선수들은 이번 시즌 LPGA 투어 10개 대회에서 8승을 가져가는 기염을 토했다. 개막전인 코디즈 골프 챔피언십에서 최나연의 우승을 시작으로,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의 김세영, 호주오픈의 리디아 고, 혼다 LPGA 타일랜드의 양희영, HSBC 위민스 챔피언스의 박인비, JTBC 파운더스컵의 김효주, 롯데 챔피언십의 김세영 등이 우승을 차지했다.

27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LPGA 투어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리디아 고가 환하게 웃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승을 놓친 대회는 KIA 클래식(이미림 2위)과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뿐이다.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 3라운드까지 선두와 1타 차 2위였던 곽민서는 이날 2타를 잃어 4위(6언더파)로 대회를 마쳤다. 경기 후 그는 "챔피언조에서 4라운드를 하니까 TV중계 카메라들이 많아서 긴장이 됐다"며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음식 먹은 게 체해서 토하기까지 했다"며 아쉬워했다.

장하나와 양희영은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함께 공동 6위(4언더파), 김세영과 이미림은 공동 9위(3언더파)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AP 연합뉴스

뮌헨 분데스리가 3연패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2014-2015 분데스리가 3연패 달성을 확정했다. 통산 25번째 우승이다.

정규리그 2위인 볼프스부르크는 27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글라트바흐의 보르시아 파크에서 열린 3위 보루시아 뮌헨 글라트바흐와의 정규리그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45분 막스 크루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이로써 전날 헤르타 베를린을 꺾었던 뮌헨(24승4무2패·승점76·골득실64)은 정규리그 4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승점61(18승7무5패)에 그친 2위 볼프스부르크와의 승점 차이를 15점으로 벌렸다.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우승 트로피 주인공이 됐다.

특히 뮌헨은 2012-2013시즌부터 3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독식하면서 분데스리가에서 역대 통산 25차례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장병호기자 solanin@

류현진, 불펜 피칭 직구만 20개 던져

추신수 5경기 연속 무안타

류현진(28·LA 다저스)이 어깨 부상 이후 처음으로 불펜에서 공을 던졌다.

류현진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현지 언론은 류현진이 직구만 20개를 던졌다고 전했다. 류현진이 불펜 피칭을 소화한 것은 왼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한 이후 처음이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던졌다. 이제는 어깨 힘을 키우는 일만 남았다"며 "류현진은 어떤 통증도 느끼지 않았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복귀를 위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29일 한 차례 더 불펜에서 공을 던질 예정이다. 마운드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슬럼프에 빠진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5경기 연속 침묵했다. 추신수는 이날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볼넷 1개와 몸에 맞는 볼 1개로 두 차례 1루를 밟았을 뿐 나머지 타석에서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시즌 타율은 0.104(48타수 5안타)로 떨어졌다.

텍사스는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5-4로 승리해 3연패에서 벗어났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사흘 연속 벤치를 지켰다. /김민준기자

류현진이 2015년 첫 캐치볼을 하고있다.

신태용 감독, 국가대표 코치 겸임

올림픽 남자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신태용(사진) 감독이 국가대표팀 코치직을 겸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울리 슈틸리케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의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수들과 손발을 맞췄던 신태용 감독이 양팀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올림픽대표팀의 젊은 선수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해 향후 국가대표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장병호기자

지소연, 영국 여자축구 '올해의 선수'

'지메시' 지소연(24·첼시 레이디스·사진)이 올해 영국 여자축구를 가장 빛낸 선수로 뽑혔다.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는 26일(현지시간) 지소연을 2015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PFA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은 92개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팀들과 8개 여자슈퍼리그(WSL) 팀 등 총 100개 구단 회원사들이 투표에 참가해 결정한다.

지소연은 지난 시즌 영국에 진출하자마자 19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면서 소속팀 첼시 레이디스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시즌도 2골을 넣으며 맹활약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시사 四字成語 厚顔無恥 (후안무치)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워할 치 :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 모른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면,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나 경제의 리더로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

문제의 근원이 부의 불평등 분포라는 점에서, 특히 재벌기업 오너들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재벌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정권의 밀어주기와 서민 근로 대중의 저임금 고혈짜기를 통해 원시적 자본을 축적해 부의 토대를 구축했다. 재벌기업들이 그만큼 더 무거운 짐을 느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세습재벌의 행태는 여전히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을 따르며,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교대근무 실시 및 개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왼쪽)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이 올 3월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활자로 박혀있는 고정문구의 한 부분이다. 현대판 노예계약(奴隸契約)에 다름없다. 이마트 현장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받는 월급은 1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마트 직원들이 불쌍하기조차 하다.

당연히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이다. 추후 사측이 이를 근거로 연장 근로 등을 요구해도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 만약 불이익을 주면 회사관계자는 형법상 강요죄와 근로기준법에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 등은 이미 지난해 직원 불법 수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최근 이마트 노조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고치는 과정에서 여전히 신체수색을 강행할 저의를 드러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정용진 부회장같은 세습재벌들이 국민들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법을 우롱하며 후안무치하게 부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기대하기 힘들다.

/강세준기자 skang715@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1		7	8	
9			7			4		
5	7				8			
	4				1			
		3	6	5	9	1		
			3				2	
			1				3	7
		9			7			8
	1	7		6		2		

	4						9	
			4	5		1		
9	1				6		2	
		2			1	7		
			6	4	2			
		3	7			6		
	8		1				6	7
		4		9	3			
	2						3	

스도쿠 정답

4	3	2	5	1	6	7	8	9
9	6	8	7	3	2	4	5	1
5	7	1	4	9	8	3	6	2
7	4	6	8	2	1	5	9	3
2	8	3	6	5	9	1	7	4
1	9	5	3	7	4	8	2	6
6	2	4	1	8	5	9	3	7
3	5	9	2	4	7	6	1	8
8	1	7	9	6	3	2	4	5

7	4	6	2	1	8	3	9	5
2	3	8	4	5	9	1	7	6
9	1	5	3	7	6	8	2	4
4	6	2	9	3	1	7	5	8
8	5	7	6	4	2	9	1	3
1	9	3	7	8	5	6	4	2
3	8	9	1	2	4	5	6	7
6	7	4	5	9	3	2	8	1
5	2	1	8	6	7	4	3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혼 20년 만에 재혼… 잘 살수 있을까요
올 음력 7~8월 지난뒤 구체적 계획 세우시길

청사초롱 여자 62년 11월 27일 양력 4시경
남자 3월 13일 양력 22시경

Q 가끔 메트로 신문에 상담 올라오는 글 중에는 간단히 두어 줄로 성의 없는 듯이 상담 의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저는 좀 더 자세히 올립니다. 병원에 간 환자가 자기의 병세를 자세히 말을 해줘야 의사가 처방을 정확히 내리는 것과 같아서 입니다. 저는 남편의 폭언과 술주정으로 35세 때 이혼하여 유치원에서 보모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아 왔습니다. 지금 만난 남자 분은 57세로 혼자되신 분인데 현재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혼이란 것이 너무나 장애 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딸과 함께 여생을 잘 지낼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A 기토(己土)사주인 귀하는 겨울에 태어났으며 년지(年支)에 인목(寅木)중에 갑목(甲木)이 남편이 됩니다. 결혼을 하였으나 31~36세 사이 무신대운(戊申大運)때 부터 삼형살(三刑殺)이 작용하여 남편의 폭언과 폭행과 더불어 월지와 년지에서 인해합(寅亥合)하여 시어머니와 남편이 합작하여 귀하를 못살게 구니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귀하 사주8자에 지지(地支)에 남자가 여러 명 있으나 반복적으로 충돌이 작용하여 한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시지(時支:태어난 생일)에 인목(寅木)중에 갑목(甲木)이 다시 들어오니 재혼은 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들딸을 새남편이 잘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남자는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관성인 자식을 극함)이 강하여 남의 자식인 따님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 하는 팔자입니다. 결혼생활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천을귀인(天乙貴人)이 없으니 특별한 배려심이 상생되지 않아 사사건건 갈등의 연속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남편인 관성(官星)이 운에서 포태법상 결혼초기에 고난을 겪게 돼 있으며 귀하 역시 이분을 만나서 크게 발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썩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2015년 음력 7월과 8월 사이 헤어질 수 있는 운세도 펼쳐지니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부연설명을 좀 더 해본다면 탐합망충(貪合忘沖:합을 이루는 바람에 충살이 되는 흉한 것을 잊어버림)하여 가정형편에 난관이 있고 갈등과 불화가 있어도 이제는 이를 극복하고 나중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과 혼자 사는 것 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살면 속편한 궁합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28일 (음 3월 10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60년생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72년생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84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49년생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61년생 사회는 냉정합니다. 73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일이 있나 살펴보세. 85년생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50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62년생 남서방향에 귀인이 있습니다. 74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6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51년생 건강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5년생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8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52년생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64년생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76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88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53년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6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7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89년생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54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6년생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78년생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길합니다. 90년생 정신을 맑게 하세요.

55년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67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79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9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56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68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80년생 사소한 고민하지 마세요. 92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57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69년생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81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3년생 일처리를 서두르지 마세요.

58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70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마세요. 82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4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59년생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71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83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말조심하세요.

소비자원·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진실공방' 가열

내츄럴엔도텍, 소송 제기·전면광고 통해 진품 해명
소비자원 "원료 바꿔치기 가능성… 검찰 수사 의뢰"

백수오의 진위여부를 놓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의 공방이 치열하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최근 백수오의 갱년기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중장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에서 약용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모두 32개 제품 중 백수오를 사용한 것은 겨우 3개(9.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내츄럴엔도텍은 자사에서 제조한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위 6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31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2015.04.08, 내츄럴엔도텍 제출자료) 해당 업체들은 이를 원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김재수 대표이사 명의로 소비자원의 보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중략… 하정철 팀장은 저희 협력업체들에 사전에 연락을 해 이엽우피소 뿐만 아니라 '일부 독극물까지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업무상 영업방해로 형사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중략" (내츄럴엔도텍 공식입장 中)

하지만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내츄럴엔도텍은 27일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고 '100%진품 백수오만을 사용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구분	백수오(국산) (뿌리) (단면)	이엽우피소(중국산) (뿌리) (단면)
기원식물	은조롱 (Cynanchum wilfordii Hemsley)	넓은잎큰조롱 (Cynanchum auriculatum Royle ex Wight)
색	회황색-황갈색	황토색 또는 회갈색
약용부위	뿌리(비대근)	-
주요성분	gagaminine : 항산화 등 작용	-
생약규격집 등재 여부	O	X(약용·식용 사용불가)

광고에 게재된 주요 내용을 보면 가격이나 물량부족 문제, 더욱이 확실한 기능성 때문에 짝퉁 백수오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둘째,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에 관하여 세계 최고의 품질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해명에도 소비자원은 "3차례 걸친 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대표이사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백수오 시료로 재실험을 진행하자는 등 어이없는 요구를 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거해온 우리 원 보관 시료로는 재검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최고 품질관리를 해왔다면 하등 재실험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전면광고를 통해 "이같은 소비자원의 검사결과와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으니 곧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검사 사실을 통보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폐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시료를 제품제조에 이용하거나,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원료와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우리 원은 검찰수사를 의뢰(2015.4.22)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은 언론 공표(2015.4.22) 이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함에 따라 실험결과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고 덧붙였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굿네이버스, 교육부에 '모두를 위한 교육' 메시지 전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교육' 응원메시지 전달식에서 전국 학생 대표 16명이 빈곤 지역 친구들을 위한 희망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12만 8,381명의 응원메시지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檢, 정낙민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 소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7일 정낙민 인사총무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경남기업에서 인사총무팀장으로 일하며 성 전 회장을 오랜 시간 보좌했다. 이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이나 금품의 전달 경위, 사실 여부를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출석한 정 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전달 의혹과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은폐 행위가 있었고 은닉된 것 중 일부 찾은 것도 있다"며 "수사의 기초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 초 성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홍원기자 hong@

'成리스트' 檢수사 용두사미 우려

공여자 측 증거인멸만 처벌·수수 혐의자 협박 방치
수사 방식에 의문… '리스트 8인' 소환 미궁 속으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증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용두사미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죽음 이후 수사팀 발족이 27일로 3주차를 맞았지만 공여자 측의 증거인멸만 처벌하고, 수수 혐의자의 회유·협박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핵심 측근인 박준호(49)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홍보부서 정모 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비밀 장부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이들이 빼돌린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증거물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증거 확보는 답보 상태에 이르게 한 반면 다른 쪽의 증거 인멸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수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죽음 직후 측근들이 충격파로 사실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루되는 것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소환 타이밍이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8인 측근들의) 회유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지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품수수 시기, 장소, 제3자가 특정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는 증거인멸이 용이한 환경인만큼 우선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팀은 현재 공여자의 증거인멸은 구속으로 처벌하는 반면 수수 혐의자의 증거 인멸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등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황증거가 더 추가되면 확실해지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총리와 홍 지사의)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미란기자 actor@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은 깨어난다
처음
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
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SOJU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